

되는 집안에 가지 나무에 수박 열린다?

동작지회



최명일 지회장

인력난, 경기불황. 이에 덧붙여 동종 및 타업종과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동작지회는 회원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다.
 그 만큼 외부환경에 민감하다.
 그렇지만 10여 년간 다져온 화목한 분위기는 이를 극복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
 홀로 넘을 수 없는 산도 함께 하면 능히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되는 집안의 조건으로 가족간의 화목을 우선으로 손꼽았다. 재물이나 권세는 그 다음 문제였다. 화목으로 다져진 분위기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는 집안에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고 했던가.

혼자서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렇듯 화목으로 뭉쳐질 땐 '놀랄 일 이 일 어날 수 있는 것이다. 동작지회는 이런 '놀랄 일 을 예비하고 있는 '집안' 이라는 느낌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82년 관악지회에서 독립, '화목'의 울타리 일귀

“일은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일은 기쁨을 안고서 한다/ 일은 자신을 갖고서 한다/ 일은 열성을 다해 한다/ 일은 남보다 앞서서 한다/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한다/ 일은 결실을 맺도록 한다.” 비좁게 느껴지는 사무실이지만 회훈 만큼은 넉넉히 벽면 한 쪽을 차지하고 있다.

좁은 사무실에도 아랑곳 없이 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속속 들어 섰다. 시골 사랑방을 연상케 할 정도로 나누는 말 속에 정감이 뚝뚝 배어 나온다. 안부인사가 일순배 돌고 자 연스럽게 업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모아진다.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오른다. 타 지회와 연결, 원재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입기계가 성능면에서 국산기계 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다. A/S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구동성으로 쏟아내는 말들로 사무실 안은 들썩거린다.

동작지회는 지난 82년 관악지회에서 분리, 독립됐다. 대부분의 조직이 친목모임에서 시작, 창립된 것과 달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지회의 탄생이었다. 분리된 조직이니 만큼 회원수도 적었고 재정상태도 열악했다. 그렇지만 심시일반하는 회원들의 정성과 임원들의 땀방울이 '화목'의 울



변장섭 부지회장



허영선 부지부장



이병의 이사

타리를 만들어 작지만 탄탄한 조직의 틀을 갖추어갔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지난 3년 동안 별 무리없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명일 지회장은 지난 3년간의 소감을 밝히며 “동작지회는 규모가 영세한 회원업소들이 많지만 회원간의 단합과 화목만큼은 풍족하게 넘친다”고 말했다. 서울의 여러 지역을 돌며 가게를 꾸리다가 5년 전 이 곳으로 이주했다는 이병의 이사는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푸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해 동작지회의 화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은 크게 사당동, 노량진, 상도동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동작구는 새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시 계획에 의거, 가지치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가깝다. 이에 따라 회원수도 몇 년 전부터 110여 업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력난, 경기불황 극복 대안 모색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누구나 인력난을 일순위로 올려 놓는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업소가 많은 곳일수록 이에 대한 체감도는 훨씬 심각하다. 동작지회는 인력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임금구조가 왜곡되고 있다. 경력이 3~4년에 불과하지만 자리를 여러 번 옮겨 지위가 공장장으로 승격됐고, 이에 따라 임금도 최하월 160만원에 달하고 있다. 기술이 충분하면야 문제가 덜하겠지만 수준 이상으로 월급이 책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현강 이사는 인력 문제의 현실을 짚으면서 대안으로 “외국 인력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업계가 인력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이다.

“사상 최대의 불경기”라고 푸념할 정도로 불경기가 더욱 심하됨에 따라 동작지회는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양질의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품목 단순화를 통한 전문화로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와 같이 과도한 제품 종류로는 인력과 제품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수회, 보라매회 등 지역 내 친목 모임을 활성화해 기술교류 및 영업 노하우를 상호 교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수회는 사당동을 중심으로, 보라매회는 상도동을 중심으로 결성돼 있는데 침체된 분위기 탓에 활동이 다소 뜸한 상태다.

홀로 넘지 못할 산을 함께 넘는다

동작지회는 회원업소의 상당수가 영세한 만큼 경기부진의 영향을 누구보다 크게 받고 있다. 그러나 푸근한 마음들이 어우러져 일군 화목의 결실이 있어, 혼자서는 넘지 못할 산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다. ‘가지’가 아닌 ‘수박’을 열게 할 수 있는 나무는 ‘화목’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네**

〈글/손인수〉



이옥련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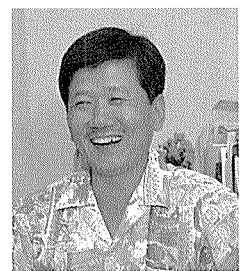
이현강 이사



김명기 이사



김기수 감사



노연일 이사



장재원 이사